

건강식품시장의 주역 기능성표시식품

오사카지사

기능성표시식품이 일본의 건강식품시장 견인

- 일본의 건강식품시장은 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성되며 최근 판매채널이 늘어나고 인바운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체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방문판매, 강습회판매가 건강식품 판매의 주요 채널이었으나 최근 10년 사이에 TV홈쇼핑과 인터넷쇼핑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 인터넷을 통한 건강식품 구매는 향후에도 호조가 예상되나, 인바운드 수요는 자국의 인터넷 쇼핑을 통한 일본의 건강식품 구매 증가와 쇼핑금액 감소 추세로 향후에는 보합세 또는 감소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테고리	시장규모(엔)	한화 추정액
특정보건용식품	3천 900억 엔	3조 9,046억 원
영양기능식품	1천 200억 엔	1조 2,012억 원
기능성표시식품	1천억 엔	1조 10억 원

기능성표시식품 신고 급속히 증가

- 건강식품 카테고리 중에는 기능성표시식품의 신고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며 가장 주목받고 있다. 1년 전에는 특정보건용식품 허가 건수를 웃돌았으며, 올해 5월 말에는 1,300건, 12월 14일 기준 1,644건을 기록했다.
- 기능성표시식품은 제품형태별로 가공식품(서플리먼트형상) 795건, 가공식품(기타) 826건, 신선식품 23건으로 나뉜다. 기능성 관여 성분별로는 난소화성 텍스트린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GABA, EPA·DHA 순이다.
- 신고실적이 많은 성분일수록 인지도는 높지만, 그만큼 경쟁제품도 많아 시판용 상품의 경우 기능성표시식품제도의 이용으로 기대되었던 차별화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기능성표시식품 상위 10개 성분

순위	성분명	신고건수	순위	성분명	신고건수
1	난소화성 텍스트린	192건	6	참꽃 추출 이소플라본	52건
2	GABA	139건	7	L-테아닌	43건
3	EPA, DHA	113건	8	비피더스균 BB536	39건
4	은행잎 플라보노이드배당체·은행잎 테르펜 락톤	67건	9	대두 이소플라본	37건
5	히알루론산	61건	10	루테인	35건

출처 : 일본 소비자청 기능성표시식품 신고정보검색

신고 건수는 증가, 성공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

- 기능성표시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약 400개사로 기업이 신고수리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나, 성공사례로 꼽히는 제품은 그렇게 많지 않다. 판켈社の 엔켈·칼로리미트, 아지노모토社の '구리나' 등 히트상품은 일부에 그친다.
- 키지루시메구미미루쿠를 비롯한 유제품회사가 요구르트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판매하여 시장규모를 확대한 사례와 카고메의 채소주스 스테디셀러 상품 사례도 있었지만, 이는 기능성표시식품제도의 결과로만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판매기업의 홍보·판촉활동 및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도 영향이 컸다는 의견이 많다.

키워드는 '수면 서포트', '스포츠 뉴트리션'

- 일본 식품신문에 따르면 기능성표시식품 중 수면 서포트 기능과 스포츠 드링크·푸드·서플리먼트 등 스포츠를 하는 사람을 위해 개발된 식품을 이르는 스포츠 뉴트리션이 향후 관심을 받고 상품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수면 서포트 제품은 아지노모토, 아사히그룹식품, 오츠카제약 등 대기업 참여가 눈에 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70% 이상이 만족스러운 수면을 취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결과도 있어, 잠재 고객이 많다고 볼 수 있다.
- 단백질, 아미노산 계열 제품이 대표적인 스포츠 뉴트리션 카테고리라는 피로, 근육, 관절 등 관련된 범주가 넓은 만큼 내년 이후에 활발한 상품개발과 히트상품 속출이 예상된다. 단백질은 수요가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표상품으로는 메이지의 자바스 시리즈가 메인 제품으로 파우더 제품은 약 300억 엔 시장규모에 이르고 있다.

기능성표시식품 등록으로 차별화 시도

-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기업은 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를 통해 기타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는 선택지로 활용이 가능하며, 제대로 된 수입업체와 협업을 통해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한다면 일본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본문 내용과 같이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하더라도 히트상품이 되는 예는 다소 드물고, 시장에서 엄청난 수요로 연결되는 사례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한 제품은 일본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높이고 선택지를 넓혀주며, 제품을 차별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제품 홍보·판촉활동,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판켈 엔킨

기능성 관여성분 : 루테인
 약 30일분 60알 2,160엔
 (약 2만2,600원)



판켈 칼로리미트

기능성 관여성분 : 김네마산, 키토산,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등
 약 30회분 120알 1,563엔
 (약 1만6,400원)



아지노모토 구리나

기능성 관여성분 : 글리신
 30일분 30개 7,128엔
 (약 7만5천 원)

